1. [지원동기]포스코ICT에 입사해야 하는 이유와 지원분야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를 작성하세요

[가치있는 미래 지향]  
  
사람과 사회에 도움이 되는 기술을 개발하는 연구개발자가 되고 싶습니다.   
작년 여름 프로젝트 회의를 위해 카페에 방문했다가, 입구에서 `파지직`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는 벌레퇴치 기계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비가 오면 저 기계가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호기심이 들어 그 제품에 대해 찾아보았습니다. 이는 해충을 막아주는 `썬더 블루`라는 제품이었고, 비가 오는 날에도 안전하며, 사고위험이 감지되면 자동으로 전원이 차단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제가 가진 지식으로 타인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사회를 만들고 싶다는 목표가 생겼고 해당 기술개발에 관심을 두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저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중점으로 개발역량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설계` 전공수업에서 비위생적 레버형식이 아닌 초음파 센서, 수위조절센서와 아두이노 등의 기자재를 이용한 노터치 변기 레버를 구현해 보았습니다. 또한, 현재는 학교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카카오톡 자동응답 챗봇을 개발 중입니다.  
  
세스코는 해충방제, 식품안전 등 세계적인 수준의 R&D센터와 인프라를 가지고, 편리하고 안전한 삶을 제공하는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활 환경 속에서 가장 불편해하고 걱정하는 부분을 먼저 고민하며, 해결하기 위한 세계 최상의 서비스를 개발하는 세스코의 일원이 되고 싶습니다. 항상 주변을 돌아보며, 편리하고 안전한 사회가 되는 일에 참여하는 연구원이 되고 싶습니다.

1. [성취경험] 살아오면서 가장 강렬히 성취하고 싶었던 일과 이를 위해 노력한 과정, 그 결과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세요

[쓰고 있는 열쇠는 항상 빛난다]  
  
저는 일찍이 적성을 발견하고, 적성과 흥미를 역량으로 길러왔습니다. 어릴 적, 군인인 아버지를 따라 18번의 이사를 했습니다. 시골과 도시를 오가며 변화가 잦다 보니, 혼자서도 몰두해서 꾸준히 할 수 있는 일을 좋아해 로봇을 시작하였습니다. 고등학생 시절, `전국 로봇 올림피아드`에서 금상을 받았고, 한국대표로 호주에서 개최되는 `세계 로봇 올림피아드`에 참가하여 Technology Award를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프로그래밍과 제어라는 적성을 찾았고, 전자공학과에 진학하여 심화 역량을 길러왔습니다. 임베디드 S/W 동아리에 입부하고 정보통신 기술진흥센터(IITP)에서 주관하는 ICT 개방형 실무인재양성 프로그램 `한이음`에 참가하였습니다. 카카오톡을 이용한 챗봇 제작, 아두이노와 각종 센서, 모터, 3D 프린트기를 활용한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등 전공과목 외의 다양한 프로젝트 경험을 쌓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프로젝트는 관심 있는 친구들과 팀을 이루어 참여한 `아두이노를 이용한 드론 제작과 제어`라는 한이음 프로젝트였습니다.   
Arduino와 Multiwii 소스를 사용하여 드론의 성공적인 제작과 비행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첫째, 기자재 선정을 잘못하거나 코드 에러 등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여러 번 추락하고 파손도 되었습니다. 드론 부품비를 학생으로서 감당하기 곤란한 가운데, 어릴 때의 로봇제작 경험을 살려 파손된 드론을 고쳐가며 시험비행을 수행하였습니다.   
둘째, PID 제어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가운데 팀원들과 각종 논문과 전공서적을 정리하며 연구실에서 밤을 지새우면서 시소테스트, 호버링 등에 몰두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갔습니다.   
이러한 탐구와 끈기로 안전한 드론의 비행과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을 때 말로 표현하지 못할 큰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쓰고 있는 열쇠는 항상 빛난다.` 저는 제가 발견한 적성을 믿고, 꾸준히 역량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이제는 세스코의 구성원이 되어 회사의 제품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며, 세계 최고 토털위생솔루션 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1. [역량준비] 지원분야 관련 본인이 수행한 프로젝트 및 연구 경험을 작성하세요 (프로젝트 내용, 진행기간, 참여인원, 담당역할, 개발언어, 상용화여부 등 포함 구체적으로 작성)

[소통과 변화에 적응하는 힘]  
  
저는 일찍 `협업을 통한 시너지` 를 경험하였습니다.   
어릴 적부터 로봇동아리에 참여하며 많은 팀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국제 로봇 컨테스트 선물배달 종목 팀장을 맡으며 기술적인 부분보다 의견수렴과 소통문제가 더 어렵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팀원 간 원활한 소통을 위해 활동이 끝나면 개개인에게 전화를 돌려, 활동에서 어려웠던 부분과 개인 의견을 제때 피드백 받았고 이를 다음 역할분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그 결과 팀원들이 소통에 적극적으로 나섰고, 서로 배려하며 협동한 결과 `은상`이라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 같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개개인의 노력과 역량도 매우 중요하지만, 소통을 통해 서로 보완하며 조화가 잘 이루어졌을 때 더 큰 시너지가 발생한다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이 경험은 제가 성인이 되어 각종 조직활동을 할 때 큰 장점이 되었고, 개발에 참여 할 때 Slack, Github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같이 팀플하고 싶은 선배`라는 호평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개발자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며, 고객 니즈를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협업을 통해 기른 소통능력과 협동력은 개발자로 성장하는 데 큰 강점이 될 것입니다.   
  
반면에 잦은 이사를 통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했던 저는 눈치를 많이 보는 단점이 있습니다. 평소 눈치를 많이 보다 보니 자주 주눅이 들고, 스스로 스트레스받는 일도 잦았습니다. 하지만 눈치를 많이 보는 만큼 눈치가 빠르기 때문에 어디서든 빠르게 적응할 수 있었고, 센스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단점을 단점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단체활동에서 개개인의 역량과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여 문제 해결을 하는 등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4. [미래비전] 포스코ICT 입사 후 하고 싶은 업무와 5년 이내에 본인이 지원한 분야에서 이루어내고 싶은 목표, 향후 성장계획을 작성하세요

[초심을 잃지 않는 끊임없는 열정]  
  
입사 초, 설계 구현화 능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대학에서 사용해봤던 Multisim, Fusion360, TinkerCAD, Fritzing 등의 지식을 바탕으로 OR CAD / Altium 공부할 것이며 실무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출퇴근 거리가 가깝다는 이점을 살려 시간을 잘 활용하여 개발에 필요한 전문 지식과 기초업무능력을 빠르게 습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기본이 탄탄한 인재가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중기적으로, 팀 내의 모범이 되는 멘토가 되겠습니다.   
학부 시절 멘토링을 통해 많은 도움을 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초기에 습득한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며 상사에게는 듬직한 직원이 될 것이며, 후임에게는 든든한 멘토가 되는 중간관리자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성공적인 프로젝트를 이끄는 전문 PM으로 성장하겠습니다.  
다수의 연구개발 경험을 토대로 `사람과 사회에 도움이 되는 개발을 하자` 라는 초심을 기억하며, 새롭고 혁신적인 프로젝트에 도전하고 싶습니다. 발전하는 IOT와 빅데이터 등을 잘 접목하여 전방위적인 생활환경 위생솔루션을 위한 연구개발을 진행하며, 효과적인 업무환경과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리더가 되겠습니다.